

全國各市·道支部別 口腔保健行事 活潑히 거행

올해도 구강보건주간을 맞이하여 각 시도지부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대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계몽활동과 구강보건시상식등을 거행했다.

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6월 11일, 서치 창립 66주년 기념 및 제46회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리틀엔젤스회관에서 개최하고 건치노인, 건치아동 그리고 모범 유공양호교사와 구강보건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을 가진 바 있다.

한편 시상식이 끝나고 계속된 91치과인 음악회에서는 덴탈 오케스트라(지휘/유창훈), 덴탈코러스(지휘/이판준), 덴탈기타합주단(지휘/김종만)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합창을 선보였으며, 맹인들로 구성된 산소망중창단과 성악가 엄정행, 김신자씨가 찬조출연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.

또 부산지부에서는 8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부산시 건치아동 및 구강보건 계몽 글짓기 공모작 시상식을 갖고 대상을 받은 김혜민(구남국교 3)양을 비롯한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9일에는 부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치과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하나로의 축제를 개최했다.

한편 광주지부는 11일 시민회관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시민위안회를 열고 건치노인, 모범교사 및 학교, 건치모자 등에 관한 시상식을 갖는 한편 국악인과 덴탈감보밴드가 출연해 호도잔치를 가졌다.

또 9일에는 제 1회 광주시 치과인의 날 체육대회를 광주교대에서 개최해 치과인의 한마당을 마련해 서구회가 우승, 동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.

이밖에 대전지부는 9일 보문산 사정공원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 치과인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1일 회관에서 건치아동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.



· 건치아동을 시상하는 서齋의 박상남 회장



· 구강보건수상자들

관련회보(P. 446)참조